

## Bibliographie

- S. Brock, An Early Syriac Life of Maximos the Confessor, in: *Analecta Bollandiana* 91
- G. Couilleau,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Paris 1972
- Adolf von Harnack, *Lehrbuch von Dogmengeschichte*, Berlin 1899
- John of Climacus. *The Ladder of Divine Ascent*, Eng. tr. C. Luibheid/ N.Russell, London/New York 1982
- J. Draeseke, Maximus und Johannes Scotus Eriugena, in: *Theologische Studien und Kritiken* 1911
- Karl Krumbacher, *Geschichte der Byzantinischen Litteratur*, München 1897
- Andrew Louth, *Maximos the Confessor*, London/New York 1999
- John R. Martin, *The Illustration of The Heavenly Ladder*, Princeton 1954
- John Meyendorff, *Christ in Eastern Christian Thought*, New York 1987
- The Oxford Dictionary of Byzantium*, Oxford 1985
- Gregory Palamas, *The Triads*, ed. with introd. by J. Meyendorff, Mahwah/N.J. 1983
- Patrologia Graeca*, by Migne 88: 632-1209
- Philokalia*, Athens 1893
- Michael Psellus, *Theologia*, Vol.I, ed. P. Gautier, Leipzig 1989;
- P. Sherwood, Maximus and Origenism, in: *Berichte zum XI. Internationalen Byzantinisten- Kongreß*, München 1958
- Nicetas Stethatos, *Life of St.Symeon the New Theologian*, ed. by I. Hausherr, *Orientalia Christiana* xii, no.45, Rome 1928
- J. Stiglmayr, *Das Aufkommen der pseudo-dionysischen Schriften und ihr Eindringen in die christliche Literatur bis zum Laterankonzil 649*, Feldkirch 1895

## 성숙한 지도자의 인성/영성

Mature and integrated leader in personality / spirituality

조성국 교수

Prof. Dr. Song-Guk Joh

I. 서론	_ 117
II. 일, 성취, 성공중심 교회사역의 기원과 문제분석	_ 120
III. 존재중심의 건강한 지도자	_ 126
1. 개인의 심리적 건강의 맥락에서	_ 126
2. 개인 인생여정의 성숙과 완성과정의 맥락에서	_ 130
3. 존재중심의 건강한, 이상적 인성 / 영성의 특성들	_ 134
IV. 존재중심 지도자의 인성/영성을 위한 실제적 제언	_ 137
V. 결론	_ 140

주제분류 | 목회심리, 리더십

주요어 | 영성, 인성, 지도자, 성숙, 성인교육

요약문 |

한국교회의 성장과 침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한국사회의 현대산업사회 패러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산업사회 패러다임은 한국교회의 성장에 기여한 것만큼, 그 자체의 근본적 문제점 때문에 한국교회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피곤과 무력감은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라 구성된 현대한국적 인성/영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곧 일, 성취, 성공중심의 영성/인성이다. 발달심리학과 성격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 성취, 성공 중심으로 패턴화된 인성은 성숙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다.

기독교 신앙과 성경적 영성은 패턴으로 표현할 때 존재중심의 영성/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존재중심의 영성/인성은 중년이후의 발달심리학과 성격심리학의 성숙한 인성개념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성숙한 영성/인성은 지도자로 하여금 퍼스날리티의 전인적 통합성을 갖게 하고, 종교의 영적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에 건강한 개인, 건강한 사역, 치유적 관계형성에 기여한다. 존재적 영성/인성의 추구야말로 종교, 인간, 교회의 본질에 맞는 지도자의 영성/인성으로서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일생의 사역,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 Abstract

*Korean churches in general are experiencing no more growth and are decreasing in growth recently. Church leaders are weary with their too hard, busy ministry. Although they are still hard workers, their ministry can not harvest as much as it could decades ago. With some Christians' misconduct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reas of society, Korean Christianity is sometimes spoken ill for not living in accordance with its own teachings. Other traditional religions and social opinions derived from critical socialistic viewpoints often stand against conservative protestant churches.*

*The exhaustion and resistance which modern Korean leaders experience are derived from the modernistic industrial paradigm profoundly influencing the Korean Peninsula, and not from the inherent structural or functional problem of the church. The main character of modernistic industrialism can be expressed as the work-achievement-success centeredness. Due to this modernistic industrial paradigm, Korean church leaders and congregations have made every effort to make big-sized churches, just as ambitious leaders in industries have done for giant conglomerates. Church leaders have shared the same paradigmatic characteristics with common Korean people.*

*As a result, Korean churches suffer from the limitations and by-products of the paradigm just as Korean society suffer from the limitations of modernistic growth-ism. Church leaders tried to discover the meaning of their ministry by virtue of quantitative achievement during the modernistic era. At the paradigmatic limitation point, however, their*

조성국, 고신대, 신학대학원, 대학원을 거쳐 남아공 포츨스트롬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1997년부터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독교인간학, 종교교육학, 기독교교육사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인간주의교육의 인간학적 문제로서의 통합성」(영문, 박사학위논문), 「하나님의 형상인 전인적 인간」(기독교교육연구소), 그리고 「복음, 그 신령한 은사」(SFC) 등이 있다.

long familiar methods were not satisfactory for their spiritual personality and successful ministry, because their unbalanced paradigm has deviated from the nature of human personality, religion and church. A need for a inner, affective orientation of personality and ministry is coming forth. This kind of orientation is often called in the name of spirituality, Christian counseling, inner healing movement. However we can not accept such a dualistic post-modernistic pole, but the being(existence)-centeredness in a holistic sense in leadership as well as in ministry.

The being-centeredness demands a healthy personality formation and life long psychologic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diagnoses of clinical psychologists, the overwork-achievement-success orientation leads to the disintegrated or distorted personality. Healing begins at finding the weak inner self of man concealed by externally broadening coverage. At the same time, theorists of human lifelong development psychology have shown the radical shift from the external orientation of personality to the internal in the life stage of middle age. Mature and well-developed personality does necessarily demand deep insight into oneself, acceptance of the inner self, integration and transcendence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ing-centeredness.

The religious leaders are called to become mature and spiritual people. Integrated personality/spirituality in leadership can not be reached by the quantitative external success of ministry but by qualitative inner maturity. For this reason, middle aged church leaders need to devote themselves much more to inner insight into their being and the spiritual meaning of religion. They must take interests in quiet inner journey, meditation, and prayer in order to develop new closeness with God, themselves, other person and world. For this purpose Korean church ministry and leadership need much more balanced paradigm in the light of the nature of man, church and religion.

## I. 서론

모 신학대학원의 칼빈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L교수가 얼마 전 질병을 치료받은 후, 마침내 한국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2001년 4월 9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조찬기도회 및 발표회에서 “나의 목회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사회가 교회를 향해 요구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이 결코 대형교회나 엄청난 사업을 하는 교회나, 다른 교회에는 없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특별한 교회보다 보통교회, 그러나 교회답다 할 수 있는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고, 슈퍼스타 목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목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보통목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통목사가 되자고 생각했다.”<sup>2)</sup> 그리고 L목사는 보통목사의 기본자세를 욕심 없는 목사, 거짓말하지 않는 목사, 겸손한, 교만하지 않는 목사라고 밝혔다.

그의 생각은 시간에 쫓기면서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회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국 교회를 성장시켜 대형교회를 만들으로써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성취 중심 목회관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암시이다. 그는 그러한 목회관이 참된 목회자상이 아니라는 점을 자신의 전공분야의 반성을 통하여, 또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에서, 동시에 죽음에 직면해본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관점에서 이제 남은 생애동안 가장 의미롭게 일해 보고 싶어하는 목회의 방향을 설정한 목회 비전을 통해 잘 밝힌 셈이다.

얼마 전 선교학자이면서 고신 교단 총무인 전호진 목사도 최근 몇 십 년

2) 「기독교보」 2001. 4. 14, 14면

동안 목회환경의 부정적 방향으로의 변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른 목회자의 임직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안하는 글에서, 최근 한국복음주의신학회의 세미나 주제였던 「신학교육과 인성훈련」의 강조점들에 동의하여, 이제는 인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3)</sup> 복음주의신학회에서 주제를 검토하였던 학자들과 전 목사는 함께, 한국교회의 일 중심, 성취, 성공 중심의 목회관의 이면에, 이에 따르지 못하는 인성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인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한 셈이다.

이러한 지적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일 중심성은 목회자의 인식임과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 집사, 권사의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 중심, 성취중심의 목회 및 교회사역은 한국사회에서 점차 방어 내지 부정적 대응을 만들어내고 있다.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은 점차 사역이 효율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대한 초조감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교인들도 피곤에 지쳐 이제 열정적인 사역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더딘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과 성취 중심의 독려가 이제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은 더욱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들 중 하나는 바로 심리상담분야에 대한 관심이다. 목회자들만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지도자들, 더 나아가 열심 있는 교회의 일반 봉사자들이 처음에는 유명장사의 강의에 공감하면서 상담자 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더니만, 이제는 기독교계 대학의 학위과정, 더 나아가 전국대학의 상담심리과정으로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교회성장을 위해 또 한가지의 새로운 프로그

3) 전호진, 「한국교회성장, 침체의 원인과 대책은?」, 월간고신 2001.4. p.51.

램인 심리상담사역이 필요하다는 성장중심적 목회관에 따른 소박한 이해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독지식인들과 사역자들의 이러한 관심이 일면으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강한 심리적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봉사자들이 일과 성취중심에서 실패와 짐과 상처를 경험하고, 그 상처가 깊어가면서 치료를 열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내면적 인성/영성<sup>4)</sup>의 방향성문제, 또 교회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연령에 있어서 중년기 이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중년기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의 배경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필요의 분위기가 한 패러다임 유형의 한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들의 연령자체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일 중심, 성취중심에서 이제 존재중심으로 나아가면서 전인적 통합을 이루어가야 할 중년기 이후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종교지도자인 교회 지도자들은 적어도 인간으로서 가장 성숙한, 동시에 깊이를 지닌 인성/영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이해는 개인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인성과 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은 곧 교회의 지도력에 영향을 미

4)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더불어 다시 부상한 개념으로서 인간의 합리적 측면을 제외한 인간의 모든 부분을 정의적 관점에서 용어화한 영성이라는 표현은,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절대적 간격을 함의하는 경건이라는 개념과 비교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또한 개혁철학의 입장에서 지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이원론적 함의를 가진다는 이유로 비판받은 한다. 영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의 함의내용은 하나님과의 유비에서 오는, 혹은 합일이라는 함의에서 오는 중세적 영성 개념도 포괄하고, 인간의 지성과 대립되는 감성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으나, 또 많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인간성을 표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총체적인 인간성 자체만을 관심 가져 인성(persona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하여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전인적 인간성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이 개념이 영성에 대한 정당한 정의라고 본다.

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II. 일, 성취, 성공중심 교회사역의 기원과 문제분석

한국교회의 현상은 많은 경우 한국사회의 독특한 현상이 종교 분야에 반영된 것들로 간주된다. 지금 분석하고자하는 한국교회의 일, 성취중심의 목회 및 교회사역관을 순전히 신학적 반성에서부터 설명하는 일도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패러다임이 종교분야에 반영된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인들의 무의식적 사고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그 특징이, 한국교회의 사역과 비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사역관을 사회적으로 분석해보는 일은 이 문제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에서 목회하는 한국목사들과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한국선교사들의 의식은, 동일한 신학전통을 가진(예컨대 칼빈신학이라면 개혁교회나 장로교회) 그 곳 교회 지도자들의 의식과 큰 차이를 보여 주곤 한다. 그 흥미로운 비교에서 발견되는 차이는 바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학의 차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라는 장(場) 안에서 오랜 시간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형성된 사고 패러다임의 차이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대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일, 성취, 성장중심 목회사역관은 많은 경우 급속하게 발전해온 현대한국사회의 일, 성취, 성장중심의 패러다임과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의 성장인식이 교회의 성장에 반영되었다. 현대한국사회에서 공통 같이 커지려고 문어발식으로 외형을 확장시킨 대기업이 경제적 성공의 표상이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외형의 성

장과 확대를 통해 형성된 대형교회를 목회와 교회의 성공으로 간주하였다. 실제로는 그 외적 성장이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인구가 이동하면서 지방의 공동화를 대가로 지불하여 이루어졌고, 교회들간의 경쟁적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진 교인들의 위치이동인 점도 많았고, 새로운 주거지의 형성과 무관하지 않으면서도, 그 성공은 종종 교회지도자들의 카리스마적 능력으로 간주되었다.

대교회의 성장방법론은 신학적 반성과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의 이상이 되었다. 대교회의 프로그램은 모든 교회들이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벤치마킹 되었다. 노회와 총회에서 대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자연히 발언에 권위를 부여받았다. 한 지역에 경쟁적으로 들어서는 개척교회들은 경쟁기업들이 지점이나 대리점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약속헌금을 근거로 은행에서 무거운 돈을 융자받아 교회당과 교육관을 건축하는 일은, 은행의 돈을 빌려 상상하기 어려운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외형을 불리면서 기업을 경영해 온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현상들을 상세히 평가하려는 것보다도,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교회의 일, 성취, 성공 중심의 목회사역관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러한 현대한국사회의 일, 성취, 성공중심 패러다임의 뿌리는 실은 전통적인 한국의 세계관이 아니라 서양의 모더니즘적 세계관에 있다.<sup>5)</sup> 이 세계관에서는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이고, 성공이 규범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끝없는 성장과 확장과 발전이 최상의 이상이다.<sup>6)</sup>

5) Joice Appleby and others, *Knowledge and postmodern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Routledge, 1996, p.262-263. 현대 및 현대화의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계속적인 진보사상에 따른 외적, 물질적 번영 곧 경제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다.

6) J.L. van der Walt, *Postmodernist anthropology: a few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여기서 일과 경쟁은 가치 있지만, 휴식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그 동안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휴식이라는 말은 불충성을 의미해 왔다. 이상적인 교회지도자는 잠도 적게 자야 했고, 교회의 모든 일에 얽혀 항상 바빠야 했고, 결과적으로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발전, 성공, 성취추구의 목회사역이 많은 경우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저돌적인 열심을 표현했던 신앙행위와, 거대한 교회당 건축과, 공격적인 전도와 선교방법이 사회적 저항과 부정적 분위기와 타종교의 열심을 자극했다. 일주일 내내 수많은 교회사역으로 시달려왔던 교인들이 점차 봉사사역을 회피하고, 교회지도자들의 충성요구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반응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성공적인 목회자로 알려졌던 분들이 지속적인 과로로 건강을 잃고 있다.

성공과 성장 추구적 한국사회는 1990년대부터 그 발전속도가 둔화되다가 마침내 1990년대 후반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국사회와 경제의 성장추구적 현실이 거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의 일방적 성장추구가 상대방의 더 강한 방어와 견제를 초래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 험난한 산길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취업의 기회가 좁아지면서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성장의 침체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어둡게 만들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성장한계는 곧 교회의 성장한계에 반영되었다. 그동안 대형교회들이 공언한 교인의 수에 과장이 많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교회의 건물과 교육관도 때로는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선교의 열기도 한풀 꺾어버리고 말았다. 타종교와 불신자들의 더

*teaching*, article read in Seminar on Postmodernism and Education at PU for CHE, 1996.9. p.1-2. 모더니즘은 인간과 사회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신념으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성취, 성공, 일은 중요한 목표가 된다.

욱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많은 목회자후보생들과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의 부교역자의 자리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좌절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은 모더니즘의 한계에서 오는 고통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의 반영이다. 모더니즘의 성장신화가 자초한 환경 파괴를 경험하면서 인류는 모더니즘의 한계를 경험했다.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계적 규모의 신경제전략은 오늘날 NGO들의 거대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성장의 신화에서 야기된 고통을 경험하고 그 내면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목회관에 함께 맞물려 있었다. 따라서 현대한국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한 고통과 반성은 당연히 한국교회의 일, 성공, 성취 중심의 목회관에도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일, 효율성, 성공, 성취 중심의 가치관은 중년기 이후의 목회자들에게 역설적으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중년기를 넘긴 많은 목회자들에게 대하여 평신도들이 싫증을 내고 있는 것이다. 평생을 씬 없이 달려왔고, 교회당을 건축했고, 중·대형교회로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있지만 교인들은 나이 많은 목회자를 실제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나이 많은 목사가 조기은퇴의 압력을 받기도 한다. 교회들이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50-60대가 아니라 40대의 젊은 목사를 원하는 것이 이러한 내적 가치를 반영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모더니즘의 가치가 교인들의 가치로 반영된 것들이다.

모더니즘에서는 젊다는 것이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무능력을 뜻하고 자연히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을 뜻한다. 성장, 성취, 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젊음의 역동성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 마치 현대기

업과 공직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50대 후반 이후에까지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것을 잘 반영한다. 대기업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30대에서 40대 중반까지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을 능력으로 보는 관점이 최근 연세 높은 목회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일의 효율성에서 나이 많은 직분자는 젊은 직분자들만큼 역동성이 없다. 이러한 경향은 곧 장로와 권사들에게도 고통을 줄 것이다. 교회는 이 사회의 마지막 보수집단이므로 단지 좀더 그 진행이 연기되고 있을 뿐이다. 만일 나이 많은 직분자들이 비효율적인 능력으로 주도성을 고집한다면 점차 젊은 층은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 것이다.

사회에서 점차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젊음은 가치롭지만 늙음은 무가치하다. 그러므로 중년기의 지도자들이 종종 신체적 건강을 위한 과도한 집착반응을 드러낸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늙음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신체적 건강의 관심 이면에 정서적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은 채 내팽개쳐져 있다. 이것이 모더니즘이 가져온 고통이다. 목회나 교회의 지도력이 일 중심이라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고통, 곧 늙음이 무능력을 의미하는 고통으로 마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가치관과 다른 모더니즘의 가치이다. 이전과는 달리 오늘날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중심, 성장중심의 패러다임에서는 새롭고 효율적인 지식이 의미 있는 것이지 지혜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은 젊은이들의 소유이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때로 중년기 이후의 교회지도자들의 고통을 깊이 동정한다. 동시에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에 일치되어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상태를 탄식한다. 왜냐하면 교회나 목회가 모더니즘에 기초를 두어서

는 안되기 때문이다. 사회조차도 그 모더니즘의 폐해로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인본주의인 한 편인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경우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회지도자가 겪는 고통은 결국 모더니즘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교회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 성공, 성취 중심의 목회관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반성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더니즘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생각된 것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소위 영성/인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다. 오늘날 영성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상담심리적 기법을 사용한 치유목회가 강조되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흐름의 내면적 이유는 바로 모더니즘의 한계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할 때, 영성/인성도 일, 성취, 성공의 수단이나 부분이 되고 만다. 그래서 영성/인성은 인간의 심리와 감성과 신비적 체험처럼 인간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자연히 인간 전체, 목회 전체의 원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이나 기능의 훈련으로 간주되고 만다. 그 결과 영성훈련, 인성훈련, 치유목회 등의 용어로 표현되면서 또 하나의 부가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용되어 또 다시 교회성장과 목회성공의 도구가 되고 만다. 이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모더니즘적 발상이다.

사실 훈련이라는 용어는 특정 부분의 숙련이나 특정 기능의 습득과 관련된 용어로서 시간에 있어서도 일정 기간의 잠정성을 함의한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용어는 가치의 변화와 성숙과 관련된 용어로서 전 생애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전인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 성공, 성취중심의

모더니즘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성교육 혹은 인성교육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영성과 인성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부분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며, 서로 대립되는 용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용어들은 전인적 인간에 대한 특정 관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인간성을 영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인간성 자체만을 관심 가져 표현할 때 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중년기 이후의 교회 지도자들은 비록 모더니즘의 가치 때문에 때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영성을 강조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되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인성과 전인성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그리고 생애단계이론에 따라 중년기 이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지도자의 건강한 인성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일, 성공, 성취중심에서 이제 존재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의 관점은 대안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이 아니라 인성과 인간발달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와, 교회와 종교의 본질에 대한 반성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 III. 존재중심의 건강한 지도자

#### 1. 개인의 심리적 건강의 맥락에서

일, 성취, 성공중심지향에서 존재중심지향으로 나아가야 할 요청은 개인의 정신건강에서도 사실이다. 일과 성취중심의 경향성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점을 이미 많은 심리학자들은 지적해왔다. 교회지도자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세워진 미국의 바나바 센터에서 임상사례들을 통해 헨즈와 페(Hands & Fehr)는 교회지도자들의 전인적 치료와 영성적 성숙성

을 논의했다.

그들에 따르면 과도하게 일과 성취를 통하여 교회지도자의 역할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교회지도자들은 진정한 자기가 억압되거나 감추어져 있어서 많은 경우 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심적 상처를 입히거나 자신에게는 위기와 침체와 무력으로 이어져 자신의 전인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sup>7)</sup> 그 결과 자신,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외현상이 심화된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소외 문제의 뿌리에는 숨겨져 있으면서도 구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거의 자기, 심리학적으로 내적 자기인 실제 자기의 심적 장애 상태이다. 헨즈와 페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주로 어린 시절 만족스러운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관계형성에 높은 벽이 존재한 경우, 혹은 잦은 폭력에 노출됨으로써 내면화되어 형성되며, 그 결과는 내면적으로 공허감, 의존감, 강한 결핍, 반항적 적의성 등을 보인다.<sup>8)</sup> 이러한 경우 심적 상태는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거나 억압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노출될 때에 초래될지도 모르는 결과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자기이상과 너무 높은 방어심리가 형성되어 실제의 자기는 더욱 숨겨진다. 자연히 그 사람에게서는 생각과 정서, 몸과 마음, 현실과 인식이 분리된다.

헨즈와 페에 따르면 교회지도자들 중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의 건강하지 못한 패턴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영웅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의식이다. 이 패턴에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일 중독에 빠지고, 모든 사람과 모

7) D.R. Hands & W.L. Fehr, *Spiritual wholeness for clergy: a new psychology of intimacy with God, self, and others*, New York: The Alban Institute, 1993. p.9.

8) *Ibid.* p.5-8.



든 일을 자신이 직접 돌보아야 한다는 메시아 콤플렉스를 드러낸다.<sup>9)</sup> 둘째는 광대라고 칭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갈등을 피하려다보니 더욱 자신과는 소외되는 경우이다. 이처럼 과도하고 경직된 반응들은 결국 내면적으로 심리적 장애를 심화시킨다.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개인적 필요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거리감이 심화된다. 이러한 정서적 장애는 영적 장애로도 이어진다.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과의 친밀성의 관점에서 헨즈와 페는 문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sup>10)</sup> 먼저 개인적 친밀성의 차원에서 보면, (1) 자신과의 관계의 개방성은 약하면서도 존재에의 힘이 강한 경우는 자기도취, 자기 과장적 특성을 드러내고, (2) 자신과의 관계의 개방성이 약하고, 존재에의 힘도 약한 경우는 자해적, 분열적 특성을 드러내며, (3) 자신과의 관계의 개방성은 강하고, 존재에의 힘이 약한 경우는 자기 비하적, 의존적 특성을 드러낸다. (4) 자신과의 관계의 개방성도 강하고 존재에의 힘도 강한 경우는 자기와의 친밀성, 자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특성을 드러낸다.

인간상호관계에서의 친밀성의 차원에서 보면, (1) 타인과의 관계의 개방성이 약하고 자신의 존재에의 힘이 강한 경우는 “영웅”, 곧 타인의 영역을 침해하고, 타인을 도구화하고, 강한 결핍이 잠복해있는 특성을 보이고, (2) 타인과의 관계성의 개방성이 약하고 존재에의 힘도 약한 경우는 침체, 자살, 약물, 알콜 중독의 특성을 보이며, (3) 타인과의 관계성의 개방성은 강하지만 존재에의 힘이 약할 경우는 “광대”, 곧 영웅추구자의 희생물이 되거나, 과도한 필요지향 성향을 보인다. (4) 타인과의 관계성의 개방성도 강하고 존재에의 힘도 강한 경우는 타인과의 친밀성과 상호의존성을 보인다.

9) *Ibid.*, p.9.

10) *Ibid.*, p.35, 39, 52.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친밀성의 차원을 보면, (1)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방성이 약하고 존재에의 힘이 강한 경우는 “화려한 이미지”, 곧 위선적이어서 영적으로는 파산적이고 가해자적 특성을 보이고, (2)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방성이 약하고 존재에의 힘도 약한 경우는 역류적 자만심, 곧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의식을 보이며, (3)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방성이 강하고 존재에의 힘은 약한 경우 종교중독증을 보인다. (4)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개방성도 강하고 존재에의 힘도 강한 경우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가진다.

이처럼 심리적 문제는 자신과 인간상호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1) - (3)까지의 유형은 각각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4)로 회복되어야 한다. (4)의 유형이 건강한 존재중심의 통합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 과정은 지위와 역할로서의 표면적 자신 아래에 감춰져있는 내적 자기, 달리 표현하면 실제의 자신을 드러내어 내면의 고통과 장애를 발견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은 모든 것의 통합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결국 자신과의 친밀성, 타인과의 친밀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달리 표현하면 일 중심에서 존재중심으로의 발전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을 헨즈와 페는 *uncove-ry* (감춰진 것을 벗겨냄) → *discovery* (발견) → *recovery* (회복)로 표현하였고, 이 과정은 중세의 영성적 전통인 *purgative* (정화) → *illuminative* (조명) → *unitive* (합일)와도 일치한다고 했다.<sup>11)</sup> 그리고 그 친밀성을 곧 통합 혹은 영적 전인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11) *Ibid.*, p. xii.

## 2. 개인 인생여정의 성숙과 완성과정의 맥락에서

일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변화해 가야할 요청은 후기 현대의 사회적 요구에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여정에 반영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찍이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인간의 일생에서 이 특징들을 지적해왔다. 적어도 인간은 청소년기 이후로 중년기에 접어들기 이전까지 일, 성취, 성공의 추구로 이루어지는 외형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40세를 전후하여 시작되는 중년기에 그 동안 외형의 추구에서 가려져 왔던 실제의 자기를 발견하면서 존재의 위기에 직면한다. 그 위기의 극복은 결국 진정한 자기의 존재적 이해와 통합을 추구해감으로써, 그리고 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구체화하면서 달성된다고 말해왔다.

정신의학자 융(Jung)은, 인간의 인생 여정의 앞부분을 인생의 오전이라고 표현했고, 그 뒷부분을 오후라고 표현했다. 인생의 오전에는 의식이 지속적으로 발전해간다. 3-5세로부터 시작된 의식의 확장이 40세 경에 극에 도달한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의식이 확장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그러나 40세 경부터 인생의 오후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의식의 팽창과 발달의 깊은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무의식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다. 이제 그 동안 소홀하거나 잊혀져 있었던 자신의 내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오전의 인생이 외적 초점이라면, 인생의 오후는 내적 초점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인생의 오후에는 무의식이 의미 있게 등장하면서 실제적 자기자신을 중심으로 전체가 통합되어야한다는 요구를 받게 된다. 그 결과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시작되는 노년기동안 개성화를 위한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되어, 자신 내의 대립적인 것들 전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간다.<sup>12)</sup>

융의 설명을 기초로 기독교상담학자인 핸드와 페(Hands & Fehr)는 교회지도자들의 인성을 설명하였다.<sup>13)</sup> 그들의 지적에 따르면, 인생의 앞부분에는 생물학적 건강이 유지되고 심리 사회적 범위가 확대되면서 성공과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공과 성취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자연히 세상의 외적인 기준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려 한다. 이 시기에는 물리적인 활동과 사고방식에 더 부응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영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외적 성공과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고백한다. 그 정점은 약 40세 정도로 말한다.

그러나 40세를 넘어서면서 생물학적 몸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인생의 종말을 맞는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외적 성취의 자기와는 정반대 편에 있는 실제의 자기를 발견하고는 갑작스러운 중년기의 위기를 맞는다. 여기서 인간은 진정한 자기를 향한 두 번째의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 이 두 번째의 여행은 존재중심의 자기실현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위기의 극복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존재중심의 새로운 여정을 통하여 진정한 자기는 하나님이 본래 자신에게 부여한 고유한 특성을 가진, 전인적으로 통합된 이상적 상태, 융의 표현대로라면 개성화와 초월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존재중심이야말로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성숙함의 차원 혹은 최종적 단계를 뜻한다. 그와 더불어 존재중심에서 인간은 전인적인 건강과 통합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큰 구도로 진행되는 인생의 중년기 이후의 발달 혹은 성숙의 단계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단계적 특성과 이행과정을 몇 가지 간단히 정리해보자.

12) A. Moller, *Perspectives on personality*, Durban: Butterworths, 1995, p.77-78.

13) D.R. Hands & W.L. Fehr, *op.cit.* p.32-34.

에릭슨(Erikson)은 발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적 과제와 위험을 제시했다. 중년기 이전에는 유아기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희망)], 초기 아동기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의지)], 주도성과 죄책감(목적), 아동기 [근면성 대 열등감(능력)], 청소년기 [정체성 대 역할혼돈(충성심)], 초기성인기 [친밀성 대 고립감(사랑)]의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35~60세에 이르는 성인기는 생산성 대 침체감(보호), 60세 이후의 노년기는 최후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통합성 대 절망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sup>14)</sup>

콜버그(Kohlberg)는 도덕문제판단에 대한 관점에서의 발달단계이론에서 아동기를 전인습적 수준 [탈규범적 도덕성으로 벌과 복종의 지향, 도구적 판단지향],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인습적 수준 [상호관계에서 착한 아이지향, 사회체계와 양심에서 법과 질서지향]으로 규명하고, 35세 이후 노년기는 후인습적 원리의 수준으로서 사회적 계약과 개인의 권리를 지향하고, 특히 최종적 단계에서는 보편적 윤리 및 원리를 지향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정리하였다.<sup>15)</sup>

레빈슨(Levinson)은 인생의 사이클에서 단계와 그 전환시기를 계절에 비교하여, 아동기와 청소년기 [0-17세, 0-3세가 [초기아동전환기], 초기성인기 [17-14세, 17-22세가 [초기성인전환기], 중기성인기 [40-60세, 중기성인전환기는 40-45세], 후기성인기 [60세 이후, 후기성인전환기는 60-65세]로 나누었다. 그는 각 시기를 약 20년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그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질적인 단계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성인기의 전환기와 단계들을 잘 지적하였다.<sup>16)</sup>

파울러(Fowler)는 인생의 통전적 발달을 인생의 의미추구를 뜻하는 신앙의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그는 중년기 이전을 유아기 [미분화적 신앙], 초기아동기 [직관적 투사적 신앙], 학령아동기 [신비적 문자적 신앙], 청소년기 [종합적 인습적 신앙], 초기성인기 [개별적 반성적 신앙]으로 구분하였고, 중년기이후를 접속적 신앙, 그리고 노년기를 보편화하는 신앙으로 그 특성을 단계화하여 기술하였다.<sup>17)</sup>

그 외에도 마슬로우(Maslow)는 단계들을 연령별로 구별한 것은 아니지만 행동 동기의 발달과정으로 기술하였다. 행동의 동기들의 발전은 생리적 필요의 만족, 안전과 안정의 필요, 소속과 사랑의 필요, 존중감의 필요, 그리고 자아성취의 필요와 초월성의 필요로 진행된다. 이 경우도 중년기 이상의 이상적인 동기란 존중감의 필요와, 궁극적으로 자아성취와 초월성의 필요라고 말할 수 있다.<sup>18)</sup> 여기서도 존중감의 필요는 외적 지향성을 가지지만, 자아성취는 내적 통합성과 발전을 보여준다. 초월성의 필요는 자아성취의 한 특성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열거한 발달심리학자들의 단계이론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와 노년기는 전인적인 측면에서 그 이전의 생애와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시야를 갖고 살게 된다. 둘째, 단계의 이행에서 갈등과 내적 변화가 있다. 셋째, 중년기 이전과 이후의 주된 핵심은 외적 지향에서 내적 존재지향으로의 변화이다. 따라서 발달단계의 최종적 이상과 특성은 내적 인식과, 판단과 정서의 통합성과 초월성 등이다. 즉 청년기의 엄밀성과 충성심과 주체성과 외향성이, 그 한계를 초월하면서 존재의 실재와 원리에 따른 통합적이고 초월적인 이해에 이르게 된다.

14) J.W. Fowler,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New York: Harper & Row, 1981. p.52, 108.

15) *Ibid.* p.52.

16) *Ibid.* p.110-112.

17) *Ibid.* 113, 119-211.

18) A.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3rd ed. New York: Harper & Row, 1987. p.15-22.

### 3. 존재중심의 건강한, 이상적 영성/인성의 특성들

교회지도자는 성숙한 영성/인성을 요구받는다. 인간과 인생의 본유적 의미탐구의 영역인 종교분야의 지도자라 할 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간 성숙의 최종적 단계특성들을 드러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성숙한 인성은 전인적인 관점, 즉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내면적 관점에서 가장 건강한 인성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마음으로부터 인식, 정서, 의지, 무의식조차도 포함하는 전인적 인성의 건강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건강이라는 전인적 탐구를 목표하였으므로 전인적 건강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영성/인성의 특징을 마슬로우(A.H. Maslow)<sup>19)</sup>, 로저스(C.R. Rogers)<sup>20)</sup>, 알포트(G.W. Allport)<sup>21)</sup>, 주라어드(S.M. Jourard)<sup>22)</sup> 등의 인간주의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들, 그리고 기독교심리학자들에게 있어 파울러, 헨즈와 페의 이론을 통해 정리해보려 한다. 그러한 영성/인성의 특성들은 중년기이후의, 존재중심의 건강한 지도자의 특성을 비록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다.

첫째, 성숙한 인성을 가진 사람은 내면의 성장을 이룬 사람이다. 자신의 내면적 본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발현한 사람이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혹은 타인의 기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존재적 의미와 잠재력을 발현하는데 주목한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모든 자원들이 최대한 잘

활용되도록 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현실에 대처한다. 영성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한 수용과 감사의 태도를 갖는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하려 한다.

둘째, 성숙한 사람은 잘 통합된 전인적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인성의 모든 체제들이 통합을 이룬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부터 가장 표면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긴장, 갈등, 분열이 아니라 균형과 통합과 상호관계적 통전성을 보여준다. 의식과 무의식, 외적 기대와 내적 요구, 남성성과 여성성, 몸과 정신 등이 평형과 통합을 이룬다. 따라서 성숙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긴장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한다. 그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존재적 필요에 대한 지나친 억압이나 결핍에서 오는 부정적 문제들이 적고, 그 문제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갈등과 좌절과 상처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다른 차원의 만족과 수용이 있다.

셋째, 성숙한 사람의 인성은 이원론적 대립이 아니라 통합을 이루고 있다. 의식과 무의식, 머리와 가슴, 이성과 본능, 전문적 역할과 개인적 자기, 소망과 현실, 일과 놀이, 직업과 취미, 의무와 쾌락, 개인과 사회, 이기심과 이타심, 생물학과 문화, 본능과 학습, 주관과 객관, 개별과 보편 등의 양극화가 해체되거나 초월된다. 소위 흑백논리가 극복된다는 말이다. 통합된 인생철학은 성숙의 기준이 된다.

넷째, 성숙한 사람은 실존적인 삶의 양식을 보인다. 현재라는 시간, 그리고 여기라는 장소를 가장 의미 있게 여기며 즐긴다. 그리고 사물과 사건의 이해에 있어서 왜곡과 편견이 아니라 실제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선입견에 사로잡힌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겸손으로 새로운 일에 대하여 개방적 태도를 가진다. 언제나 학습하는 사람의 특성을 가진다. 동시에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여기며, 일상적인 것 안에서 새로움과 경이감을 가진다. 즉 신선한 미적 감수성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자신의 선택과

19) SongGuk Joh, *Human Integration as a fundamental anthropological problem in Neo-Humanistic education*, doctoral thesis, Potchefstroom University, 1997. p.77-82.

20) Ibid. p.64-68.

21) 김용섭, 「Gordon W. Allport 의 Personality Theory에 있어서의 성숙의 개념과 종교적 함의」, 조성국 편, *성격심리학*(교수논문모음집), 부산: 고신대학교기독교교육과, 2001. p.155-158.

22) S.M. Jourard, *Healthy Personality*, New York: Macmillan Publ. Co. 1974.

의지에 따른 자율적 행동이 주도하고, 또 그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는다. 성경적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강한 종말론적 의식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성숙한 사람의 인성은 경직성이 아니라 창의성의 특성을 보여준다. 논리적인 인식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탐색, 예컨대 감각, 감정, 직관 등에 대하여도 열려있다. 과거의 경험, 미래의 희망, 전통과 금기사항, 규제 등에 대하여서도 과장되어 경직된 인식과 태도가 아니라, 균형 잡힌 전체적 이해를 갖고, 필요한 정도의 열린 태도가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수동적인 준봉자 혹은 적응자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가진다. 현실의 부당한 문화에 대한 예측에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 영성적 측면에서 표현해본다면, 성령의 인도에 따른 열린 태도의 특징을 들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규범 외에 절대적인 것이란 없다.

여섯째, 성숙한 사람의 영성/인성은 초월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모든 관점이 자신에게서 출발하고 자신 안에 갇혀있는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타인, 생명, 사랑, 자연과 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등 타자, 문제, 그리고 보편적 원리로 중심성의 이동이 가능하고,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적 태도를 가진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의 깊은 친밀감,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 약자에 대한 깊은 연민, 자신이 그 부류에 소속되어 있다는 일체적 유대감을 가진다. 미성숙한 지도자는 자기중심성, 현실적 안정추구, 자기명예추구로 특징지워진다. 대체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의 많은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일곱째, 성숙한 영성/인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성과 한계성을 인식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그래서 보통사람의 인식에서 볼 때 하찮은 대상을 향해서도 엄청난 가치의식과 존경의 태도를 보인다. 또 이 사람에게서는 종종 고독이 있다. 영성 측면에서 죄인됨에 대한 깊은 현실적 인식, 소박하고 단순해 보이는 정직성을 들 수 있다. 여기서서는 위선이나 거

짓이 자리잡기 어렵다. 자신이 외적인 지위나 허울로서 과장되지 않는다.

여덟째, 성숙한 영성/인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존재 본성과 실재를 체득한 급작스러운 개인적 경험인 초월경험, 곧 절정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험은 환희와 감격과 소명감을 수반하고, 이후 인생의 방향과 행동의 동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에서 정리한 성숙한 인간, 심리적으로 건강한 인간, 이상적인 인간의 영성/인성의 특성들에 대한 정리는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소위 성숙한 인간 혹은 자기 실현한 인간에 대한 심리학 연구의 결과들이다. 다소 심리학자들의 인본적 가치가 포함된 내용들을 성경적 인간관의 관점에서 조정하면서 정리하였다. 인본주의심리학자들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긍정, 자율성에 대한 신뢰 등의 신조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현실적 인식, 인간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성경적 전인성의 이해로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IV. 존재중심 지도자의 인성/영성을 위한 실제적 제언

이제까지 논의해 온 바를 기초로 존재중심 지도자의 영성/인성형성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구체적인 제언을 해볼 수 있다.

첫째, 중년기이후의 교회지도자들은 교회당과 교육관 건축, 대형교회로의 성장, 업적, 성취 등 외적인 성과로서 자신의 존재의의와 사역의 의의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한 통찰로서 존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구도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형에서 구도자적 사역자형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사역의 시간과 범위와 량에 집착하기보다는 질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

에 집착하기보다는 본질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다. 우선 일의 량과 시간을 존재적 가치를 위해 줄여야 한다.

둘째, 중년기 이후의 교회지도자들은 자신의 존재적 성찰을 위해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 존재적 성찰은 이전 시기처럼 외부 세계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더욱 자신의 내부 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바깥 세계를 구경하는 관광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순례에 대한 성찰이다. 따라서 하루 중에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일주일 중 하루 정도, 아니 어떤 경우에는 며칠 간 훌쩍 떠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와, 자신의 내면의 통찰을 위하여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존재적 성찰은 지도자로 하여금 단지 시대의 대중적 시사평론가들의 입의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경건한 교제와 자신의 존재의 깊은 통찰을 통하여 의미 있는 도를 말할 수 있게 해 준다.

셋째, 존재적 성찰은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여는 데서 가능하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기도와 묵상 혹은 명상이 좋은 방법이 된다. 기도도 큰 소리로 많은 내용을 쏟아내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듣는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자신의 삶과 인생과 현실에 대한 묵상과 명상을 포함한다. 종종 많이 말하기보다는 침묵하고, 분주히 쫓기는 초조함보다는 차분하고도 조용한 인성의 분위기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듣는 일이 말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을 때가 많다. 그 때 묵상을 통한 깨달음은 영적이고 내면화된 메시지가 된다. 이러한 통찰 있는 설교는 설교의 횟수가 많고, 행정과 경영의 일로 쫓기면서 분주할 때 불가능하다. 사도들이 왜 기도와 말씀증거에 집중하려 했는가를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다.

넷째,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성취와 공적과 자랑과 장점보다, 그 동안 생각의 배경에 숨겨져 있었던 어두운 것들, 곧 연약과 실패와 실수와 부족과 무능이 억압된 없이 자신에게 용납되어야 한

다. 그 때 그러한 것의 노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진솔한 지도자가 된다. 종종 훌륭한 지도자의 실패에 대한 고백과 이야기는 공적에 대한 찬양보다 더욱 질적으로 수준 높고 깊은 공감을 가져다준다. 감출 것이 없는 지도자는 존재적 가치를 가진 지도자이다. 자신의 실패경험으로 이어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강의는 진솔한 유머와 감동으로 다가오고, 숨겨진 죄에 대한 공개적 회개는 깊은 동정심을 가져온다. 외적으로 입혀진 신화를 벗겨낸 진솔한 인간의 모습은 신화 그 이상이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방어벽 없는 진솔함에는 영혼을 움직이는 웅변이 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솔한 사람에게 친근한 권위를 느낀다.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을 견지하고도 꺾대를 향하는 나이는 평범성에서 친밀감을 느낀다. 사실 자신의 생애에서 이루어진 큰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임에 분명하다.

다섯째, 가장 큰 가치가 외적 웅대함과 화려함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서의 일상적이고, 또 그 일상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것에서 발견될 때 존재중심의 성숙이 드러난다. 성공보다는 실패자, 건강보다는 병자와 장애자, 우승자보다는 약자,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행복보다는 인간의 고통과 비참, 어쩌면 위대한 외적 업적보다 일상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 일상 속에서 잊혀져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가치가 더 의미 있게 여겨질 때 그것은 존재중심의 성숙의 증거이다. 그들의 고통과 비참과 그들에 대한 과거 자신의, 그리고 현재 사회의, 소홀한 대우가 깊이 다가오면서 공감하여 자신의 아픔으로 느껴진다. 자신의 욕구의 방해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안정을 흔들어버리는 대상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탈(脫)자기중심으로 합(合)타인과 정의와 사랑중심에서 분노한다. 그러한 사람은 인간 고통의 본질을 통찰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마지막 삶의 의미를 찾는다.

여섯째, 새로운 친밀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일과 성취의 가치에서 오는

위대성과 찬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데서 오는 친밀성이다. 자신과 타인과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전과 다른 친밀성,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도구적 가치에서 본 것이 아니라, 중심성이 그것들로도 옮겨질 수 있고, 공유될 수도 있는 친밀성은 존재 중심의 성숙에서 온다. 예컨대 새롭게 어린아이들이 좋아진다. 이전처럼 학술적인 글, 비판적인 글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과의 교제의 경험을 경이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수필을 쓸 수도 있다. 어린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성은 생애의 오전시기와 다른 친밀성이다. 새로운 친밀성은 지도자들을 권위주의에서 해방시킨다.

일곱째, 교회지도자들의 모임은 존재적 기초에서 오는 친밀성을 가져야 한다. 종종 일의 성공적 성취를 추구하지만, 존재적 현실을 방어와 억압과 비난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친밀감과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 교회지도자들의 모임은 행정과 경영의 효율성을 의도하는 전문위원회 그 이상이어야 한다. 국회와 이사회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적 성격에 맞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 때, 당회가 건강하고, 동시에 교회공동체가 건강해진다. 어쩌면 교회는 한국사회와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이 조정되면서 더욱 존재적 가치에 몰두하는 지도력을 회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새로운 의미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최근 10 여 년에 가톨릭과 불교의 급작스러운 성장은 한국사회의 내면적 존재가치회구의 반영이다. 이 종교들의 성장은 한국사회의 이러한 내적, 외적인 변화의 경향성에 힘입은 바 크다.

## V. 결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해왔음에도 최근 한국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확산되고, 기독교회의 지도

자들에게 대한 존경과 권위가 추락하며, 복음 사역이 담보적 상태에 머물면서, 한국교회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무척 피곤해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왜 교회지도자를 청빙할 때 연로한 종교지도자의 해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젊은 목사에 대한 선호성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가를 분석해보았다. 그것은 일, 성취, 성공추구중심의 현대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이 한국교회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결국 그 패러다임의 한계성이 한국교회 문제의 뿌리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 성취, 성공추구는 존재추구중심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한 인간의 심리적 건강과, 한 개인의 인생순례에서도 확인되는 요점이다. 더 크게는 문화적 패러다임이 그 방향에 대한 반성을 추구하고 있다. 존재중심으로의 지향성 변화의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한 지도자의 영성/인성이 이미 존재적 가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당위적 가치를 갖는다.

## 참고문헌

- 「기독교보」 2001.4.14.
- 김용섭, 「Gordon W. Allport의 Personality Theory에 있어서의 성숙의 개념과 종교적 함의」, (조성국 편, 「성격심리학」(교수논문모음집), 부산: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2001).
- 전호진, 「한국교회성장, 침체의 원인과 대책은?」, 월간고신 2001. 4월호.
- 조성국, 「아브라함 마슬로우의 인간주의 심리학적 인간학」, (조성국 편, 「성격심리학」(교수논문 모음집), 부산: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2001).
- 조성국, 「칼 로저스의 인간주의 심리학적 인간학」, (조성국 편, 「성격심리학」(교수논문 모음집), 부산: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2001).
- Appleby, J., ed., *Knowledge and postmodern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Routledge, 1996
- Fowler, J.W.,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New York: Harper & Row, 1981.
- Hammes, J.A., *Humanistic psychology: a Christian interpretation*, New York: Grossman, Stratton, 1971.
- Hands, D.R. & Fehr, W.L., *Spiritual wholeness for clergy: a new psychology of intimacy with God, self, and others*, New York: The Alban Institute, 1993.
- Joh, S.G., *Human Integration as a fundamental anthropological problem in Neo-Humanistic education, doctoral thesis*, Potchefstroom University, 1997.
- Jourard, S.M., *Healthy Personality*, New York: Macmillan Publ. Co. 1974.
- Maslow, A.H.,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2nd ed., Princeton: Van Nostrand, 1968.
- Maslow, A.H.,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1.
- Maslo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3rd ed. New York: Harper & Row, 1987.
- Meyer, W. F., Moore, C. & Viljoen, H.G., *Persoonlikheidsteorie*, Johannesburg: Lexicon Uitgevers, 1988.
- Moller, A., *Perspectives on personality*, Durban: Butterworths, 1995.

- Schultz, D. P., *Growth psychology: models of the healthy personality*, New York: Van Nostrand Reihold, 1977.
- Van der Walt, J. L., *Postmodernist anthropology: a few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teaching*, article read in Seminar on Postmodernism and Education at PU for CHE, 1996.9.